



제17차 세계 내비뇨기 및 충격파 쇄석술회의

● 일시 : 1999년 9월 2일~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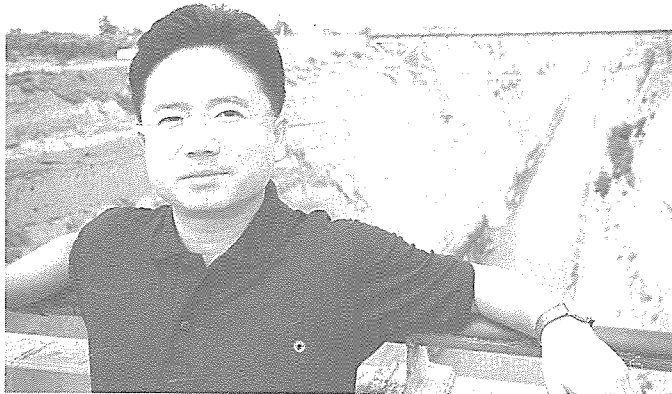
● 장소 : 그리스 로도스섬

제17차 세계 내비뇨기 및 충격파 쇄석술 회의가 지난 9월2일부터 4일간 그리스의 세계적 휴양지 로도스섬에서 1천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19명이 참석하여 12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술회의는 ‘방광결석의 치료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9월 그리스 로도스에서 열린 제17차 세계 내비뇨기 및 충격파 쇄석술 회의는 세계에서 약 1천4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으로 6백5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도 필자를 포함하여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회는 그리스의 세계적인 휴양지인 로도스섬에서 개최되었다. 필

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내비뇨기과학회 회원들은 공동일정으로 8월 30일 대한항공으로 김포를 출발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리스의 올림픽항공으로 갈아타고 새벽 3시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하였다. 매우 지루하고 긴 장거리 여행이었지만 모든 회원들이 마치 운동시합을 앞둔 선수처럼 긴장을 해서인지 크게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로도스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관계로 아테네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오전은 피곤한 여독과 부족한 수면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아테네 시내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고린도 운하를 배경으로 한 필자 (李炯來/충북대학교 의대 교수)

그리스의 세계적 휴양지

처음 간 곳은 빌로피포스 언덕이었다. 기원전 1세기경 필립 집정관의 치적을 그리는 필립동상을 보고 능선을 따라 고대 시민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이 당시 집정관인 솔론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프닉스 언덕을 지나 산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길바닥은 모두 대리석이었다. 이 나라의 가장 혼한 돌이 대리석이었다.

얼마쯤 내려갔을까 소크라테스가 최후를 맞은 감옥이 보였다. 소크라테스가 측은하긴 했으나 그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편이었다. 적어도 감

옥 자체가 대리석이었으니까...

우리는 아테네의 심장부인 아크로폴리스로 발길을 옮겼다. 도리안 양식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의 3중문을 지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재 1호인 파르테논 신전에 다다랐다. 파르테논 처녀를 의미하는 헬라어로는 처녀 아테네여신을 모신 신전이다. 한참 복

원 중이지만 중후하고 정교하며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변의 복원중이거나 복원을 마친 에렉시온 신전, 니케아 신전, 디오니소스 극장 및 헤로데스 극장 등의 다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저기 뒹구는 건물조각을 뒤로한 채 제1회 올림픽이 열린 올림픽스타디움을 향했다. 스타디움 앞 광장 한가운데에 ‘42’라고 적힌 블록이 눈에 띄었다. 이것이 마라톤평야까지의 거리, 즉 마라톤 경기의 거리를 의미하는 숫자였다. 스타디움은 약 4만명을 수용하고 육상경기만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기장이나



올림픽정신과 올림픽경기 전통을 간직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경기장은 역시 이 나라에서 가장 흔한 대리석으로 지어져 전체적으로 눈이 부실 정도의 흰 고전적 이미지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저녁 식사 후 대통령궁과 신다그마광장(1850년대 독재정권에 반대한 집회가 처음 열린 곳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메카)을 거쳐 올림픽 공항에 도착하였다. 밤 비행기로 제17차 세계 내비노기학회가 열리는 로도스섬으로 향했다.

로도스는 B.C. 14세기경에 생긴 고대도시로 B.C. 2세기경 로마, 서기 6세기경 페르시아의 지배 후 한때 터어키의 지배를 받았던 수난의 도시로 여러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로도스는 신시가와 구시가로 구분되어 있다. 구시가는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에는 터어키에 패하기 전 1500년까지 성 요한 기사단이 거처한 기사단의 궁전, 이후 세워진 슬레이만 회교사원, 고고학 박물관 등의 건축물과 쇼핑거리인 소크라테스거리와 기사단거리 및 바다의 문(Marine gate) 등 유적지가 많이 있다. 우리는 로도스 첫날 호텔에 짐을 풀고 로도스 구시가에서 위에서 언급한 고대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고대 그리스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빠빠한 학회 일정으로 가지 못한 고대 도시 린도스는 고대 도시 중 지금까지 그 자취를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로도스시에서 동쪽 해안선을 따라 약 60km 떨어져 있다. 마을 전체가 정부로부터 개건축이 금지되어 있고 각각의 집은 흰 석회로 도색되어 멀리서는 눈이 부실 정도라고



파르테논신전 앞에서의 충북대 병원 참석자(좌로부터 우승호, 이형래, 이상철)

한다. 역시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은 아크로폴리스로 Lindian Athena 성전과 도리안 양식의 기둥, 로마시대의 사원이 있는 기사단성으로 이곳의 출입문에는 ‘낙석조심’, 즉 떨어지는 돌이나 구르는 돌에 상해를 입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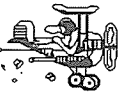
한국 19명 참석, 논문 12편 발표

금번 제17차 세계 내비노기학회 및 15차 basic research symposium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충북대학의 필자를 비롯하여 이상철교수와 전공의 우승호선생, 중앙병원의 박태한교수와 박형근교수 외 전공의 1인, 카톨릭대학의 황태곤 내비노기학회 회장, 중앙대학에서 문우철, 문영태교수, 부산백병원의 최성협교수, 강북삼성의 김영학교수, 마산삼성의 오태희교수, 동국대의 하달봉교수, 이대목동병원의 박영오교수, 단국대학의 이해원교수, 삼성의료원의 전성수교수 외 전공의 1인, 서울

대학의 김현희교수, 을지대학의 유탁근 교수 등 총 19명이 참석하였고, 총 12편의 국내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회 첫날인 9월 2일 오전은 basic research symposium이 각 3개의 별도의 장소에서 각 1시간45분씩 전체 6개의 session으로 구성되었다. 각 session은 각각 1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발표자는 포스터를 게시한 후 3장의 슬라이드필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문을 1분간 발표하고, 4분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basic session은 다른 session보다 발표시간이 길고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좌장들 또한 우리가 교과서나 저널에서 익히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저명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그 무게를 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자와 이상철교수의 공동논문을 필자가 발표하였다. 내비노기과학 분야에서 많은 논문과 진취적이고 도전적 연구로 유명한 Preminger와 Teichman교수가 좌장으로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문으로 발표자들을 긴장시켰다. 다행히 필자의 발표는 좌장의 관심 속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고, 필자의 발표를 격려하러 한국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9월 2일 오후는 lab session으로 12개의 topic을 주제로 실질적인 임상경험, 임상술기 및 지식을 서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저녁에는 장거리 여행 및 모국어가 아닌 영어 발표에 대한 중압감 등으로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리스 전통 댄스 및 노래가 준비되고 전통 그리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욕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로도스섬의 로도스시 old town에서 개최되는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8시에 시작한 지루한 인사말, 축사 등이 30분 이상 지속되었다. 여기저기서 필자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배고프다는 불평이 터져 나온 것도 잠시, 중세 성곽 한 가운데서 에게해의 밤바람을 맞으면서 관람하는 그리스 민속무용 및 가요는 마치 필자를 중세 유럽의 한 도시로 안내하는 듯 하였고, 이런 감흥으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갔다.

둘째날은 8시부터 Smith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오전은 주로 요로결석 및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에 관하여 7개의 session으로 나누어 초청연사들의 강의 및 현재 결석 분야에서 논쟁점들을 각 분야 저명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하극신 결석에 대한 요관경하 쇄석술(URS)의 효과적 적용에 관해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요로결석 특히 방광결석의 치료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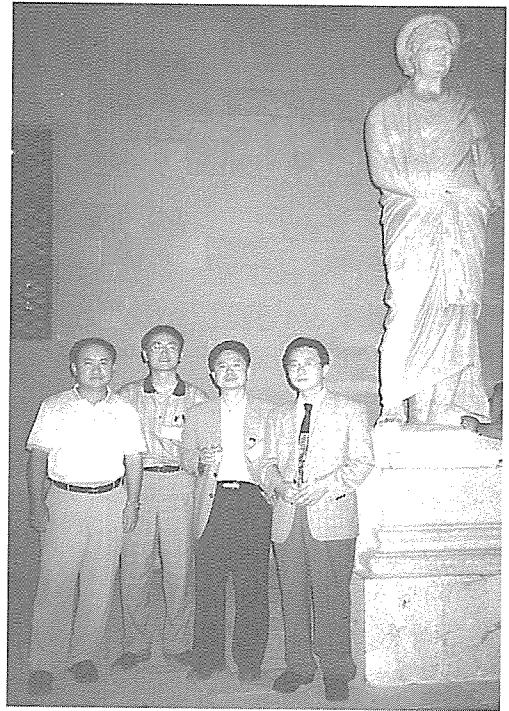
한 역사적 고찰은 모든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유럽인들의 자기분야 역사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유럽에 비해 짧은 비뇨기과의 역사를 가지지만 지금부터 우리 후대 의사들을 위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는 7개의 방에서 21개의 session이 진행되었다. 이중 6개의 비디오 session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스터 session으로 진행되었다. 카톨릭대학의 황태곤교수 등 총 7개의 논문이 poster로 발표되었

다. 하루 일정이 끝나고 저녁이 되어 박태한교수와 최성협교수를 모시고 저녁을 같이 하면서 멀리 이국땅에서 단합 및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은 아침 7시 early morning session을 시작으로 오전은 긴장성 요실금(stress incontinence), 복강경 종양학(laparoscopic oncology) 등을 topic으로 초청 연사들의 열띤 발표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필자의 발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국내 논문이 발표되었다.

18차 회의는 내년 브라질서

학회 마지막날인 5일은 필자의 전공 분야인 전립선에 관한 topic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서 경요도전립선 절제술(TURP)과 Laser TURP, micro-



환영만찬회장에서

wave US, ILC 및 TUNA에 대한 공방은 실질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의 유머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95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15차 학회부터 거론되고 미래의 관심분야인 인공장기(artificial organ) 및 로봇 수술(robotic surgery)에 관한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다. 낮 12시가 되자 학회장이 갑자기 붐비기 시작했다. 학회장에서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다 모여 들었다. 바로 이번 학회의 핵심 논의사항과 발표논문들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Take Home Message를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내년 제 18차 학회가 개최되는 브라질 상 파울로의 대회장의 인사말을 끝으로 학회는 마무리되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도 내년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㉗